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선도업체를 찾아서!

전북지원 품질평가사 이상희

쇠고기이력제는 모든 소의 출생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을 추적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고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쇠고기 구매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쇠고기이력제의 역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먹거리 안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력제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6월 돼지고기도 농협목우촌 돈육사업본부를 비롯하여 16개의 업체에 축산물 안전성 재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력제를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 후 1년이 지난 지금,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참여업체를 뽑는다면 농협목우촌 돈육사업본부를 손꼽을 수 있겠다.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돼지고기이력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협목우촌 돈육사업본부의 현황을 알아보자.

돼지고기이력제 전담팀 운용

농협목우촌 돈육사업본부(장장 황보승, 이하 농협목우촌)는 돼지고기이력제의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각 단계별 이력제 전담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심은 계열사업부(부장 한남순)와 생산부(부장 허성욱)로 각 단계별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돼지고기이력제의 시작! 사육단계 생산농가 관리

사업별 단계	농협목우촌 담당팀(인원·명)	세부업무
총괄	계열사업부 농가지원팀(2)	돼지고기이력제 사업 총괄
사육 단계	계열사업부 계열사업팀(10)	농가 교육 및 홍보
도축 단계	생산부 현장팀(3)	이력번호 발급 및 전산신고
가공 단계	생산부 식육생산팀(2)	육음번호 구성 및 전산신고
전산 부문	전산팀(2)	도축·가공단계 전산 개발

농협목우촌은 시범사업 초기 43개의 계열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6개(13.5)농가와 함께 하고 있다. 돼지고기이력제 사업은 생산농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업 초기 생산농가에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농협목우촌 계열사업팀 지도소장 10명은 해당 농가와 1:1 면담, 지역별 집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남원시·전라남도 영광군(농협목우촌 중돈사업소 위치)의 농가협의회에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이력팀장을 초청하여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가지원팀에서는 참여농가의 사육현황 정 기신고율



농협목우촌 황보승 장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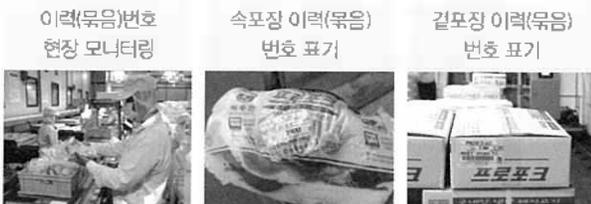
이 98% 이상이 되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사업의 정착화를 위한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철저한 업무분장으로 도축단계를 책임지다!

돼지고기이력제가 기존 쇠고기이력제와 다른 점은 개체가 아닌 농장별 관리다. 즉, 생산농가에서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동 후 도축장에서 소비단체에 조회가 가능한 이력번호를 생성하게 된다. 농장별 구분 도축·이력번호 발급 등 도축단계의 업무가 기존과 다르게 높게 평가되고 있다. 농협목우촌에서는 각 업무별(농장구분·이력번호 발급·도축신고 등)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생산부 현장팀 직원 1명은 계류장에서 돼지열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와 돼지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를 확인 후 농가를 구분하여 계류시킨 뒤 이력번호를 발급한다. 이후 도축이 이루어지면 다른 직원은 농장단위로 도축여부를 확인 후 참여농가의 도축 신고를 함으로써 업무분담을 진행하고 있다(도축 시 돼지 농장의 혼합이 발생하게 되면 예냉실 입고 시 자동레일을 통해 해당 농장 또는 등급의 레일로 이동시킨다).

소비자 확인 가능한 이력(묶음)번호 표시 · 생성하는 가공단계

농협목우촌의 돼지고기 가공기준은 등급·브랜드별(최종등급·도체중·등지방 두께 등) 가공이다. 이에 가공단계에서 등급·브랜드 기준으로 묶음번호를 생성하여 관리하며, 생산부 식육생산팀 담당직원은 매일 위 기준으로 묶음번호를 생성하여 속포장 및 겉포장에 동 번호 표기·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돼지고기 이력정보



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별 기준 중 친환경 브랜드(순진무가)를 따로 생산하고 있으며, 동 브랜드는 농장 단위로 가공하여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제품으로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 위한 전산팀 운영

농협목우촌은 도축부터 가공단계까지 특유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축을 기준으로 각 돼지도체에는 목우촌 자체의 고유번호 네자리 코드(Gamble)가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전산에 등록되며, 등급판정 이후 각 개체의 등급이 실시간으로 입력된 후, 예냉실 레일 배정도 인력이 아닌 시스템 조작으로 농장·등급별로 입고된다. 즉, 당일 도축된 도체의 gamble을 자체망에서 조회하게 되면 현재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등급별 가공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며,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력(묶음)번호가 표기된 속·겉포장 라벨지를 실시간으로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전산팀도 농협목우촌이 돼지고기이력제 우수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돼지고기 이력을 조회해보세요! 철저한 관리 판매단계

최근 농협목우촌은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부문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농협중앙회 전산팀과 농협정보시스템 직원들이 자체 시스템(유통부문)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기간 동안 돼지고기이력제 사업에 우수한 면모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업의 기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농협목우촌 돈육사업본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돼지고기이력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축협이전**